

[세상보기] 대전 인쇄출판 클러스터는 어떻게

충남일보 | 승인 2021.11.11 12:00



남진근 대전시의원

인류 의사소통 발달과정은 네 번 전환점을 돌았다. 동굴 속 벽화에서 시작된 문자의 발명은 고려 금속활자의 서양 전래를 통한 인쇄혁명을 거쳐 인터넷을 탄생시켰다. 인쇄술은 제지술과 화약, 나침반과 더불어 인류 문명 발달을 가져온 4대 발명으로 꼽을 정도다. 특히 인쇄술은 지난 1천 년 동안 인류 문명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르네상스라는 인간 중심의 문예부흥 바람을 더 멀리까지 날리게 한 가장 큰 요인 역시 인쇄술이었다.

과거 첨단 IT 산업이었던 인쇄술은 현대에서도 ICT, 디자인 산업과 융합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단순 간행물 생산뿐만 아니라 금속·플라스틱·목재·도자기·옷감 등에 활용하면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전은 서울과 대구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인쇄출판 중심지다. 동구 삼성동과 정동, 중동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쇄골목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문을 연 인쇄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전의 유구한 인쇄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집적화한 협업 단지 조성은 관련 업체와 3000여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대전 인쇄 출판단지 조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중이다. 산(産)·문(文)·예(藝)가 융합한 명품 산업공간으로서 대전형 도시첨단 인쇄출판 클러스터(가칭) 조성을 제안한다.

도시형 산업 집적지로서 인쇄출판 클러스터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 첫째,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생산을 위한 단순한 인쇄 출판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기지로서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형 산업에 걸맞은 집적지 조성을 통해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도시기능 수용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산업적 측면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과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인쇄출판 산업은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문화산업이다. 게다가 대형화, 산업화를 통해 대표적 대전 특화산업으로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타 산업보다 매우 크다.

그렇다면 집적지 조성은 어디에 해야 할까? 현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다. 하나는 인쇄 출판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운 집적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집적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배치하거나, 신규 집적지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다.

인쇄 출판 업종의 집적은 가급적 3만㎡~10만㎡ 내외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적합하다. 곳곳에 있는 영세 업체들을 아파트형 공장 형태나 도심형 지식산업센터로 불러 모아 대전과 인근 세종시의 정부기관 발주 물량을 수용해야 한다.

바야흐로 동네 서점이 천연기념물이 되고, 도서관이 독서실이 되어버린 시대다. 대전형 인쇄출판 클러스터는 찬란한 '훈민정음'과 '직지'의 영광을 되살릴 이성의 파로스 등대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전의 내가 아니다.” <좁은 문>을 쓴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명언은 여전한 울림을 준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다.

<대전시의원 남진근>